

민 정 실	음 진 천
-------------	-------------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및 건강 강좌
 넷째주 일요일 11시 “부모은중경” 독경법회 (한글 번역본)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부서진 쇠 종처럼
 말 없는 침묵을 지킬 수 있다면
 노여움은 화평을 찾고,
 평화의 열반에 닦아간 것이라네.

If you can be in silent quietness like a broken gong that is silent, you have reached the peace of NIRVANA and your anger is peace.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5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우리시대의 부처님

모든 생명을 내몸처럼... '보살' 같은 사람

2500여년전 이 땅에 온 부처님은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부처님과 고대의 수행자들이 참선하던 숲에는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현대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변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숨는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거리에 걸린 연등에는 부처님이 간 길을 따라가겠다는 불자들의 소원이 담겨 있다. 우리 시대 부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세상이 갈등과 분쟁에 시달릴 때마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부처님 법이란 부처님의 말씀이요 곧 교리다. 결국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한 불자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 교리의 핵심은 연기(緣起)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멀하면 저것이 멀한다’로 요약되는 연기란 삼라만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얽혀있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하늘이 없으면 구름이 있을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거대한 천체부터 미생물까지 인연으로 화합하며 우주의 신비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연기는 무아(無我)나 공(空)과도 같은 뜻이다. 고정된 자아가 없으므로 무아이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 달리 말하면 이것과 저것의 경계가 따로 없고 만물은 거대한 ‘한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일상사에서도 연기는 쉽게 발견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 빵 하나도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다. 곧 나만큼이나 남도 소중함을 알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남에게 주며 성내지 않고 늘 온화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스님은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사는 것이 연기의 핵심”이라며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면 탐욕과 분노가 사라지고 모든 중생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그 마음이 부처님마음일세.’ 중국 당나라 무착스님이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에게서 들었다는 계송이다. 환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은 타자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다. 물론 환한 얼굴은 ‘교언영색(巧言令色)’과는 거리가 멀고 부드러운 말도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터지는 말이다. 해인율원장 혜능스님은 “부드러운 말이라도 상대방을 헐뜯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자비심을 가지려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수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간은 너와는 다른 내가 있다는 착각에 젖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등 삼독(三毒)에 묶여 끊임없이 번뇌하고 고통받는다(통도사 율원 율주 혜남스님).” 고통의 원인이나 발생과정에 대한 성찰없이 탐욕과 분노를 반복하며 어리석음에 젖어 있으면 영원히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처님은 <숫타니파타> 제2장 ‘소품(小品)’에서 “수행자가 생존을 초월하고 이치를 깨달아, 인간계와 천상의 모든 향락에 대한 탐욕을 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편력할 것”이라고 설했다.

삼독을 끊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 부처님은 세계의 실상인 연기를 선정을 통해 깨달았다. 그러므로 깨달아 부처님이 되려면 수행이 필수적이다. “수행이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 우리 안에 숨겨진 불성을 발견하는 일이다(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장 명정스님).” 삼라만상이 연기로 맺어져 있기에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닌다. 불성에는 무한한 능력과 자비가 숨겨져 있다. 한편 대다수의 종교는 남을 위해 살라고 가르친다. 도덕적 선을 의무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는 허물어지기 쉬운 감정이다. 도덕과 양심을 외치면서도 막상 이해관계가 걸리면 탐욕을 따라가는 것을 현실에서 슬하게 본다.

수행은 삿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기도 하다. “수행을 통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피해서 걸어가듯, 청정함이 의무가 아니라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금강선원장 혜거스님).” 성불하기 위해 수행에 여념이 없는 불자들도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자신의 건강을 위해 혹은 깨달음을 신비화해 도인을 꿈꾸며 가부좌를 트는 것은 참다운 수행이 아니다. 부처님과 같이 연기를 깨우쳐 모든 사람들과 자비를 나누며 살겠다는 것에 수행의 목적을 둔 사람만이 부처님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스님).”

불교가 강조하는 완전한 인간형은 보살이다. 보살이란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매순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반야경> 등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보시섭.애어섭.이해섭.동사섭 등 사섭법(四攝法)은 바로 보살의 삶이다. 보시섭(報施攝)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조건없이 베푸는 것이다. ‘우월한 내가 열등한 남에게 준다’ 혹은 ‘선행을 베풀었으니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는 생각은 연기법에 위배된다.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은 “연기법에 따라 나와 나의 경계를 지웠듯이 보시에도 대가를 기대해선 안된다”며 “보시를 주고받는 관계는 공하고 청정해야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애어섭(愛語攝)은 상냥하고 인자한 말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보살은 자애로운 말로 포악한 사람도 온순하게 하고 절망과 비애에 빠진 사람에겐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해야 한다. 이행섭(利行攝)은 행위로 중생에게 복락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동사섭(同事攝)은 중생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섭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덕목으로 나머지 세 가지를 아우르는 근본이다. ‘삼라만상이 서로 연기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중생이 아프면 내 몸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유마거사의 마음이다.

경전엔 사섭법을 실천한 인물이 종종 등장한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는 상불경(常不輕)보살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을 대하듯 극진히 섬겼다. 부처님 제자 중 한명인 주리槃特迦(周利槃特迦 Cudapanthaka)는 어리석은 인물이었으나 경내를 청소하면서 비로소 성불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지혜의 빗자루로 마음의 때를 없앤 것이다. 이와 같은 보살행에서 보듯, 새벽부터 일어나 쓰레기를 치우며 수고하는 청소부, 편안한 임종을 도와주기 위해 일하는 호스피스 등 사회의 그늘에서 묵묵히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부처님이다. 동국대 불교학과 박인성 교수는 “사회적 소수자와 미물마져 존경하고 예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섭법을 실천하는 삶이며 부처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부처님은 특정부류나 계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악인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내 안의 불성을 알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자세를 가질 때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다(경국사 회주 인환스님).”

<법화경> 은 부처님이 열반을 염두에 두고 설한 생애 최후의 당부다. 그만큼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 이때 제자들에게 내린 법문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선언이다. 수기(授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기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된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뜻이다. 제바달다까지 부처님의 스승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악인의 대명사로 알려진 제바달다(테바닷타)는 부처님의 제자였으나 후에 배반한 인물로 교단의 분열을 시도했다. 심지어 부처님을 살해하려 하기까지 했다. 마가다국 왕자를 피어 부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했으며 부처님을 살해하려 했던 패륜의 대명사다. 그런 제바달다까지 부처님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자비로 충만하고 엄청난 능력을 지닌 고귀한 존재가 사람이기도 하지만 탐욕의 도가니에서 허우적대는 것도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부처님이다(범어사승가대학장 무비스님).”

중요한 것은 ‘나’만 부처님이 아니라 ‘너’도 부처님이라는 자명한 사실이다. 내가 부처님이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용서와 자비다. 모든 사람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사람.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불교신문 2130 호/5 월 17 일자]

'법'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지

Q: 불교는 법을 중시하는 가르침이라 합니다. 법의 본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본성 지니고 있는 것, 해탈.열반을 성취하는 도대

A: 법의 원어는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dharma)이고 빠알리로는 담마(dhamma)입니다. 중국에서는 법(法)으로 번역이 되었고 달마(達磨)로 음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 다르마, 담마, 달마가 지금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르마는 √dhr(to hold)에서 파생된 명사로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나 법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제문헌에는 ‘정의, 의무, 법률, 법칙, 도덕, 선(善), 종교’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에서도 법(法)이라고 옮겼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불교에 받아들여져서 초기경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술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기경의 주석서들은 법(dhamma)의 의미를 크게 • 빠리얏띠(pariyatti, 교학, 가르침) • हेतु(hetu, 원인) • 구나(guna, 덕스러운 행위) • 닛삿따닛지와따(nissatta-nijjivata, 개념이 아닌 것)의 넷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정리가 되는데 • 부처님 가르침(=진리=덕행)으로서의 법과 • 정신적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법(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주석서에서는 불법(佛法, Buddha-dhamma)이라 부르고, 정신적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법을 일체법(一切法, 諸法, sabbe dhamma)이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일체법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체법이 곧 불법(一切法 皆是佛法)’이라고 <금강경> 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두 가지로 정리되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는 교학체계를 아비담마(Abhidhamma)라 하는데

‘법(dhamma)에 대해서(abhi)’라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대법(對法)으로 옮겼고, 법을 체계화한 궁극적이고 수승한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승법(勝法)이라고도 옮겼습니다. 상좌부 아비담마에서는 이러한 법을 4 위 82 법으로 정리하고, 유부 아비달마에서는 5 위 75 법으로 이해하였으며, 대승 아비달마로 불린 유식에서는 5 위 100 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자신의 본성(사바와, sabhava, 고유의 성질, 自性)을 지니고 있는 것을 법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욕과 성냄이 서로 다른 법인 이유는 대상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탐욕과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을 가진 성냄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2 법, 75 법, 100 법으로 분류되는 법들이 모두 서로 다른 고유성질(自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든 법들(諸法)은 무상이고 고고 무아라는 보편적인 성질(共相)을 가집니다.

불교 2600 년사는 실로 ‘법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대승에서는 법공(法空), 법상(法相), 법성(法性)의 관점에서 공종(중관계열), 상종(유식계열), 성종(여래장계열)이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법이야말로 해탈.열반을 성취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법의 무상.고.무아를 통찰하는 것을 위빳사나(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법의 보편적 성질인 무상.고.무아를 해탈의 세 가지 관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결코 해탈.열반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고 하였고 ‘법을 의지처로 삼고(法歸依) 법을 등불로 삼아라(法燈明)’고 고구정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목 스님 (불교신문)

 - 불기 2549 년 부처님 오신 날 일년 연등 동참자 명단 및 일년 영가 연등 동참자 명단-

지면 관계상 가족 대표만 적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처님 오신 날 일년 연등 동참자 명단-

0. 세계평화 불사원만 성취; 0. 불국회 소원성취
1. 홍법 문정모, 2. 정숙자, 3. 염상열, 4. 손덕연, 5. 양영일, 6. 조남국, 7. 김대성, 8. 월인 안수근
 9. Un Bom Grabski (이은범) 10. 심경수, 11. 안광훈, 12. 보광 이진욱, 13. 대혜 임종춘, 14. 남점술
 15. Seoul Garden Restaurant, 16. 김형숙, 17. 이찬혁, 18. 노덕복, 19. 한복희, 20. Jack Benton
 21. 한정언, 22. 한영택, 23. 임현철, 24. 민병희, 25. 고옥난, 26. 이기선, 27. 이수경, 28. 박성호, 29. 장준성
 30. 유행석, 31. 홍대선, 32. 현덕 홍준수, 33. 청정행 정혜주, 34. 김종삼, 35. 모건태, 36. 김한경, 37. 정노미
 38. 김도연, 39. 이창주, 40. 박세구, 41. 정태주, 42. 진여정 박정화, 43. 정재희, 44. 정영진, 45. 송선미
 46. 김자성심, 47. 정순범, 48. 김막동, 49. 오철석, 50. 원수호, 51. 김진희, 52. 윤택주, 53. 윤희석
 54. 윤찬웅, 55. 최승근, 56. 김우영, 57. 이광열, 58. 오성택, 59. 장연꽃, 60. 강경식, 61. 정형진, 62. 이윤재
 63. 이정철, 64. 이금규, 65. 정봉임, 66. 이경순, 67. 윤지수, 68. 박정신, 69. 윤선규, 70. 김재수
 71. Recharad Stanley, 72. 권영민, 73. 황영기, 74. 정강자, 75. 박진봉, 76. 박기원, 77. 김순옥, 78. 전민우
 79. 권용성, 80. 유지선, 81. 김태웅, 82. 박래경, 83. 백련화 김호례, 84. 박으뜸, 85. 박꽃별, 86. 박샛별
 87. 유인갑, 88. 배재현, 89. 배진, 90. 최문선, 91. 유중배, 92. 김봉규, 93. 일각 김영신, 94. 김일태
 95. 류웅렬, 96 번 윤미경, 97 번 권충안, 98 번 백용기, 99 번 최경오, 100 번 유행석, 101 번 이경주
 - 102 번 유동원, 103 번 유중배, 104 번 김영희, 105 번 김태성, 106 번 김병일, 107 번 서해숙, 108 번 김수호
 - 109 번 김수영, 110 번 김수진, 111 번 John MacEnolty, 112 번 Lloyd Harvey, 113 번 김대원, 114 번 김현웅
 - 115 번 이대용, 116 번 김순백, 117 번 김일태, 118 번 김재철, 119 번 김태익, 120 번 이순이, 121 번 김현식
 - 123 번 김도식, 123 번 조수경, 124 번 원봉린, 125 번 김병성, 126 번 손윤식, 127 번 구은석, 128 번 구지윤
 - 129 번 권나연, 130 번 안두선, 131 번 권점용, 132 번 권진구, 133 번 이종태, 134 번 이건호, 135 번 이희승
 136. 손인석, 137. Daniel Garrett, 138. 마야 이옥이, 139. 황현식, 140. 광건택, 141. 우성민, 142. 오재훈
 143. 배종수, 144. 임종수, 145. 김귀차, 146. 최두영, 147. 여태호, 148. 민병곤, 149. 한상범, 150. 광상현
 151. 문장우, 152. 문병호, 153. 김영남, 154. 김순택, 155. 남기태, 156. 박정민, 157. 안준훈, 158. 김범련
 159. 이동균 (이상 연등 159 등)

- 일년 영가 연등 동참자 명단-

1. 강석주 대종사 선영 영가

2. 망모 김해유인 김석량 영가 (행효자 박명훈 복위)
 3. 망부 남평후인 문해경 영가, 망모 인천유인 채정조 영가, 망숙부 남평후인 문길한 영가
숙모 평산유인 신갑연 영가 (행효자 흥법 문정모 복위)
 4. 망 외삼촌 청주후인 한용근 영가 (행효녀 박인주 복위)
 5. 망부 전주후인 이갑주 영가 (행효자 월성 이우곤 복위)
 6. 망부 나주후인 임창규 영가 (행효자 대해 임종춘 복위)
 7. 망제 남양후인 흥대경 영가 (행효자 흥대선 복위)
 8. 망부 연일 후인 정지학 영가 (행효녀 청정행 정혜주 복위)
 9. 파평윤씨 윤재선 영가
 10. 망 고무래 정씨 선망 조상 영가 일체 (행효자 정순범 복위)
 11. 망 나주 정씨 정시흥, 망 도광 김씨 김성례 (행효녀 정정순 복위)
 12. 망 고조부 창원후인 황석하 영가 (행효자 황현식 복위)
 13. 망 증조부 창원후인 황재학 영가 (행효자 황현식 복위)
 14. 망조부 창원후인 황명흠 영가 (행효자 황현식 복위)
 15. 망부 밀양후인 박승옥 영가, 망모 봉화유인 정명화 영가 (행효자 박진봉 복위)
 16. 망제 밀양후인 박금봉 영가 (박진봉 복위)
 17. 망제 밀양유인 박영례 영가 (박진봉 복위)
 18. 망제 밀양유인 박경례 영가 (박진봉 복위)
 19. 망자 밀양후인 박준연 영가 (박진봉 복위)
 20. 망부 김해후인 김순동 영가 망모 광산 유인 (행효녀 김순옥 복위)
 21. 김해유인 김금순 영가 (김순옥 복위)
 22. 김해유인 김분옥 영가 (김순옥 복위)
 23. 김해유인 김선옥 영가 (김순옥 복위)
 24. 김해김씨 김종산 영가 (김순옥 복위)
 25. 망부 문화후인 유선경 영가 (행효자 유지선 복위)
 26. 망 외조모 오계순 영가 (행효녀 김상희 복위)
 27. 망부 밀양후인 박상철 영가 (행효자 박정민 복위)
 28. 밀양박씨 선망 조상 영가 일체 (행효자 박래경 복위)
 29. 망부 밀양후인 박선구 영가, 망모 권앵순 영가 (행효자 박래경 복위)
 30. 김해 김씨 조상 영가 일체, 망조부 김해후인 김부일 영가, 망조모 박성래 영가
망부 김해후인 김재복 영가, 망모 정순남 영가, 망계모 영가 (행효녀 김효례 복위)
 31. 망제 영가 (김효례 복위)
 32. 망 오빠 최치남 영가, 망 올케 영가 (최문선 복위)
 33. 망부 청풍후인 김유근 영가, 망모 인동유인 장소녀 영가,
망 상산후인 김금진 영가 (행효녀 김재수 복위)
 34. 망조부 경주후인 김해수 영가, 망조모 해주유인 최용업 영가 (행효손자 일각 김영신 복위)
 35. 망자 유지만 영가 (김현옥 복위)
 36. 망조부 안동후인 권순학 영가 (행효녀 권나연 복위)
 37. 망조모 능주유인 구귀숙 영가 (행효녀 권나연 복위)
 38. 망 수자령 5 위 영가 (권나연 복위)
 39. 망조부 김해후인 김판석 영가, 망조모 경주유인 김복례 영가, 망부 김해 후인 김상선 영가
망 수자령 4 위 영가 (행효자 김동연 복위)
 40. 망모 김씨유인 김남이 영가 (행효자 손인석 복위)
 41. 망 수자령 1 위 영가 (김동주 복위)
 42. 망 최청순 영가, 망 조상 일체 영가 (행효자 최원준 복위)
 43. 망모 밀양 유인 박송절 영가, 망 조상 일체 영가 (행효자 최점령 복위)
 44. 망부 경주 후인 김덕재 영가, 망모 민정복 영가 (행효자 김동주 복위)
 45. 망 수자령 영가 (조가현 복위)
 46. 망모 평산 유인 신정균 영가 (행효자 석지웅 복위)
 47. 망부 송성용 영가, 망 언니 송경자 영가, 망 오빠 송씨 영가, 망 수자령 13 위 영가 (행효녀 송윤숙 복위)
 48. 망 숙부 의령 후인 남기문 영가 (행효자 남우현 복위)
 49. 망 정송영 영가, 망 정 해숙 영가 (행효녀 정영숙 복위)
- (이상 영가 연등 49 등)

법회소식 NEWS

- 올해는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지 불기 2549 번째 되는 해임과 동시에 불국사가 창건된지 만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행사는 올해로 4 번째 불국사에서 가졌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부처님 오신 날 일년 연등 불사는 세계 각지에 계신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도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분들이 동참하는 연등불사는 미국 중부지역인 세인트루이스에 불국사가 뿌리를 내리고 포교의 밑거름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일년 연등 동참 159 등과 일년 영가 연등 동참 49 등으로 총 합계 208 개의 등입니다. 208 개의 일년 등은 앞으로 일년동안 법당을 장엄해서 사찰을 찾는 많은 불자들에게 환희심과 연등의 아름다움을 심어 줄 것 입니다.

- 올해 2549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 불국사에서는 법요식 및 관불의식 그리고 처음으로 애기부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축하공연도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불국사의 꽃보살님신 안소혜불자님께서 부처님 오신날 기도 입재때와 회향 때 그리고 애기 부처님이 서계신 관불의식 좌대 꽃꽂이를 해 주셨습니다. 좌대 꽃꽂이는 아름답게 부처님이 계신 상단과 신장님이 계신 중단 꽃꽂이는 신비스런 분위기가 풍기면서도 장엄하게 단장해 주셔서 신도님들이 환희심과 기쁨마음으로 법회와 기도에 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처음 갖는 부처님 오신 날 축하공연은 Mr. John MacEnulty 가”To Honored to Buddha” “Celebration Joy of Life” “Celebration of Birth”를 목관 플룻(Native American Flute)으로 연주해 주었습니다. Mr. John MacEnulty 는 20 년간 St. Louis Symphony (1962-1982)에서 투바 주자로 활동했고 1983 년에서 1991 에는 The Belleville Philharmonic 에서 지휘자겸 총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을 돌면서 순회공연을 하고 있고, CD (Chrysalis Drems)와 저서 (Finding the Love)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일반 서점에서 CD 나 책을 구입하시든지 대출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사찰 도서관에 비치해 놓았으니 빌려 가실 수 있습니다. Mr. John MacEnulty 는 병마와 싸우면서 참선과 기도 정진을 하면서 암을 이겨냈다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더욱 빛내주셔서 다시금 감사 드립니다. 올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치룰 수 있었던 것은 흥법 문정모 회장님과 보광 이진옥 총무님을 중심으로 신도님들이 화합이 되었으므로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가든 파티를 위해 넉넉한 음식으로 즐거운 공양시간을 갖게 해주신 불국사 신도님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이제 막 여름의 문턱에 들어설려고 할 때 Maramec Spring Park 에서 가진 5 월 다섯째주 야외법회는 그동안의 피로를 녹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모두들 좋은 시간들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 6 월 셋째주 교리 탐구 주제 발표는 월성 이우곤 거사님께서 “건강”을 주제로 연구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교리 탐구는 신도님들 모두가 참가하는 장입니다. 모두가 술선수범해서 토론에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불국사에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회원의 한분인 선하 한용숙 보살님께서 아드님이신 김기덕 학생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김기덕 학생은 앞으로 약 8 개월동안 Maryville University 에서 ELS 를 공부 할 것입니다. 불국사 식구가 모두 보호자인 만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5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91 번 성혜란, 92 번 경자생 이상열, 93 번 임인생 이매원, 94 번 정묘생 이인희, 95 번 기사생 이승환, 98 번 병오생 이종문, 99 번 갑술생 이승현, 112 번 기축생 김현웅, 113 번 계사생 김숙향, 114 번 김정아, 115 번 계해생 김정아, 271 번 임신생 최우리.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 짜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 현재 불국사에서는 지붕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성불하십시오. -

-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